



고위 당정청 협의회...'29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 노력

기사입력 2020-04-26 21:55

김정은 동향 언급도...'특이동향 식별안돼' 입장 반복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계획대로 29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남은 사흘 간 국회에서 노력하자는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여야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니, 신속히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원론적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원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재원 가운데 1조원을 국채발행이 아닌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데 당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남은 쟁점은 없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조원 규모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 부담을 줄이자고 요청했고, 제가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상의해 그렇게 하기로 정리했다"며 "쟁점은 다 해소됐다. 데드라인은 29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기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당정협의회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대상이다.

hysup@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국제원유가 마이너스면 휘발유 공짜?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572562>
